

❖ **동제사(同濟社)**는 1912년 상해에서 조직된 한국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이자, 신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국외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모두가 함께 바다를 건너가자(동주공제, 同舟共濟)'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상해 임시정부 수립의 발판이 된 중요한 단체입니다. 동제사의 조직 구성과 특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요 조직 구성원

동제사는 초기에는 비밀 결사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박은식, 신채호 등 당대 최고의 지식인과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 총재(이사장): 신규식

* 주요 인물: 박은식, 신채호, 조소앙, 흥명희, 문일평, 박찬익, 신건식 등

* 회원 규모: 초기 300여 명에서 시작하여 상해 거주 한인 대부분이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2. 주요 하부 및 유관 조직

동제사는 단순히 정치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과 외교를 위한 하부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박달학원 (교육 기관)

신규식이 설립한 교육 기관으로, 독립운동가 자제와 청년들에게 역사, 지리, 영어, 수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모태가 되었습니다.

신아동제사 (한중 연대)

중국의 혁명가들(천두슈, 쑰원 등)과 연대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중국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외교적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3. 동제사의 주요 활동 및 역할

동제사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실질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 독립운동가 양성: 청년들을 중국 군관학교나 유럽/미국으로 유학 보내 군사 및 정치 전문가로 키웠습니다.

* 외교 활동: 중국 국민당 정부 및 혁명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 정부 수립의 기초: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동제사가 7년 동안 닦아놓은 인적·물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 조직의 의의

동제사는 경술국치 이후 실의에 빠졌던 독립운동가들을 결집시켰으며,

민주공화제라는 근대적인 국가관을 공유하며 임시정부 수립의 이념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 "동제사는 상해 독립운동의 뿌리이자, 임시정부의 산실이었습니다."

>

동제사의 구체적인 활동이나 신규식 선생의 생애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원하신다면 동제사가 중국 혁명 세력과 맺었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동제사는 단순한 망명 단체를 넘어, 중국의 혁명 세력인

중국동맹회(中國同盟會) 및 중국 국민당과 '혈맹'에 가까운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당시 신규식 선생이 중국 혁명가들과 쌓은 깊은 신뢰와 인맥 덕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관계와 협력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신해혁명에 직접 참여

동제사의 리더인 신규식은 중국의 **신해혁명(1911)**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중국 혁명군에 가담하여 전공을 세웠고, 이 과정에서 쑨원(손문), 황성(황훙), 천치메이(진기미) 등 중국 혁명의 핵심 지도자들과 형제와 같은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 중국 동맹회 가입: 신규식은 한국인 최초로 중국 동맹회에 가입하여 중국인들과 함께 청나라 타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 신뢰 형성: 이 "함께 피 흘린 역사"는 훗날 중국 세력이 한국 독립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를 통한 조직적 연대

동제사는 중국 혁명 인사들과의 공식적인 협력 기구로 신아동제사를 조직했습니다.

* 성격: 한·중 양국 혁명가들의 공동 전선.

* 중국인 참여: 쑨원, 천두슈(진독수), 다이지타오(대계도) 등 중국의 거물급 인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했습니다.

* 목적: 아시아의 평화와 양국의 혁명 완수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확약받았습니다.

3. 군사 및 교육 지원 (인재 양성)

중국 혁명 세력은 동제사가 주천하는 한국 청년들을 중국의 군사 교육 기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 군관학교 입학: 신규식과 중국 지도자들의 인맥을 통해 한국 청년들이 바오딩 군관학교, 운남 육군강무당 등에 입학하여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 지청천, 이범석 등)

* 재정 지원: 중국 국민당 세력은 동제사의 운영비와 독립운동 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4.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의 발판

이러한 유대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결실을 맺습니다. 1921년 쑨원이 광동에서 호법정부를 수립했을 때, 신규식은 임시정부 특사로 파견되어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 정부로 승인받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요약하자면

동제사와 중국 혁명 세력의 관계는 ***상호 호혜적 동지 관계***였습니다.

동제사는 중국의 혁명을 도와 공화제 수립에 기여했고, 중국은 그 대가로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 은신처, 교육, 자금, 그리고 외교적 승인을 제공했습니다.

혹시 신규식 선생이 중국 혁명가들과 나눈 구체적인 일화나, 동제사 인물들이 입학했던 중국 군관학교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 동제사의 리더 신규식 선생은 독립운동의 가장 큰 자산은 '무장 투쟁을 이끌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중국 신해혁명 인맥을 총동원하여 한국 청년들을 당시 중국 최고의 군사 교육 기관들에 입학시켰습니다.

동제사 인물들과 그들의 추천으로 입학했던 주요 중국 군관학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오딩 육군군관학교 (保定陸軍軍官學校)

북경 인근 바오딩에 위치했던 학교로, 당시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정규 군사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 성격: 근대적 전술과 전략을 가르치는 최고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 주요 인물:

* 지청천 (이청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일본 육사 출신이지만 망명 후 바오딩 군관학교 관련 인맥과 교류하며 무장 투쟁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 이범석: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이자 광복군 참모장. 신규식의 추천으로 이 학교 계열에서 훈련받으며 성장했습니다.

* 의의: 이곳 출신들은 훗날 광복군의 핵심 지휘관이 되어 체계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 운남 육군강무당 (雲南陸軍講武堂)

중국 남서부 운남성에 위치한 군사 학교로, 신해혁명의 지도자들을 배출한 '혁명의 요람'으로 불립니다.

* 성격: 신규식과 친분이 두터웠던 당계요(탕지야오) 장군이 운영하던 곳으로, 한국인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 주요 인물:

* 이범석 (철기): 신규식의 추천으로 입학하여 기병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 김종진: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로, 신규식의 추천을 받아 이곳에서 군사 지식을 익혔습니다.

* 양림: 훗날 황포군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 특징: 머나먼 타국임에도 불구하고 동제사의 강력한 외교력을 통해 한국 청년들이 장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3. 황포군관학교 (黃埔軍官學校)

광저우에 설립된 학교로, 쑨원이 설립하고 장제스가 교장을 맡았던 중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군사 학교입니다.

* 성격: 국공합작의 산물로, 군사 훈련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혁명 사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 주요 인물:

* 김원봉: 의열단 단장. 동제사 세대 이후의 인물이지만, 동제사가 닦아놓은 한중 연대의 토대 위에서 의열단원들과 함께 대거 입학했습니다.

* 박효삼, 권준, 이종원 등 수십 명의 독립운동가가 이곳에서 훈련받았습니다.

* 의의: 동제사가 뿐만 아니라 '황포'라는 거대한 숲을 이루어, 1920~30년대 독립운동의 무장 투쟁 인력을 대거 배출했습니다.

❖ 학교별 비교 요약

| 학교명 | 위치 | 특징 | 배출 인물 예시 |

|---|---|---|---|

| 바오딩 군관학교 | 하북성 바오딩 | 중국 최고 권위 정규 육사 | 지청천, 유동열 등 |

| 운남 육군강무당 | 운남성 쿤ming | 신규식의 직통 인맥 학교 | 이범석, 김종진 등 |

| 황포 군관학교 | 광동성 광저우 | 한중 연대 무장 투쟁의 절정 | 김원봉 및 |

의열단원 다수 |

동제사가 청년들을 보낸 이 학교들은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한국 광복군'의 뿌리가 된 인적 자원을 길러낸 공장과도 같았습니다.

이 인물들이 실제 전투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예를 들어 청산리 전투에서 이범석 장군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더 알아볼까요?